

# 무의식의 창조성 관점으로 고찰한 창조신화: 흑암/혼돈, 천지개벽/분리, 섬/육지 창조 중심\*

김진숙\*\*

## 국문초록

본 논문의 취지는 창조신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흑암/혼돈 천지개벽/분리, 육지/산 창조 관련 신화의 심리학적 의미를 임상현장에서 관찰한 꿈, 적극적인 상상 및 예술작업과 관련하여 무의식의 창조성과 치유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먼저 창조신화가 개인사나 인류사에서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할 때 무의식의 창조성에 의하여 저절로 만들어지는 원형적인 투사 현상으로서 자아의 태도에 따라 새로운 의식의 도약(재건)의 조짐이 될 수도 있고 자아의식의 침범이 될 수 있음을 논하고, 융, 폰 프란츠, 노이만, 하딩, 에딘저 및 국내의 연구현황과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사례를 연관시켜서 연구하게 된 배경을 밝힌다. 창조신화의 흑암/원초적인 혼돈(*massa confusa*)의 심리학적 의미에서 ‘흑암’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로 보고 어둠속에서 기어다니는 에스키모의 창조자와 어둠속에 있거나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꿈들과 상황을 소개하면서 연금술의 니그레도(*nigredo*)공정과 연관하였다. ‘원초적인 혼돈’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로보로스, 플레로마, 유아기의 경험 또는 근원적인 자궁의 의미를 가지며 창조의 전조이기도 하

접수일 : 2023년 9월 30일 / 심사완료 : 2023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27일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무의식의 창조성과 창조신화”를 보완한 것임. 사례와 꿈 및 적극적 상상내역의 인용에 대하여 피분석자에게 증례보고 서명 동의서를 받았으며 저자가 보관하고 있음. 동의해 주신 8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n-Sook Kim, A.T.R., M.P.S., Ph.D., Graduate School of Seoul Buddhist University, Private Practice (JSJRS), #312 Grand Tower, Unyang-dong, Gimpo, Kunggi-do, 10072 Korea

Tel: +82-32-932-5393, E-mail: adreso13103@gmail.com, adreso@naver.com

지만 심연(abys)에 갇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된다고 보는 꿈과 상황을 함께 논한다. ‘천지개벽(분리)’은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이 되기 전에 의식의 문턱을 건드릴 때 두 개로 쪼개지는 것과 관련되고 의식의 진보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보면서 관련신화로서 ‘천지에 간극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세상’,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 만들어지는 세상’, ‘산 이동 설화’를 소개하고 각 신화가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를 관련 사례와 함께 논한다. 관련문헌을 토대로 천지분리가 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창조자의 외로움, 불안함 등 정서적인 부분이 개입한다는 것, 그리고 지연된 분리가 크레아투라(creatur 창조물)의 죽음이 되고 성급한 분리가 천재 혼돈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 임상에서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천지개벽’을 연금술의 분리(separatio)공정과 연관하면서 흑암/혼돈/무의식에서 빛/의식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육지 창조’는 무의식의 내용물이 자아의 영역으로 구체화되는 의식성의 출현을 의미하며, 관련 신화로서 메르퀴리우스 영의 육화라고 볼 수 있는 ‘괴물/거신의 몸이 육지가 되는 신화’, ‘흙을 가지고 오는 등 창조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육지’와 ‘저절로 만들어지는 육지’에 관련되는 신화와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육지 창조’를 연금술의 땅처럼 구체화되는 응고(coagulatio)와 연관시키면서 적극적 상상 및 미술, 음악, 무용 등의 창조적인 작업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을 자아영역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치유적 기능을 허용 내지 활성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멸망 후 다시 떠오른 육지관련 신화를 ‘자아의 재구축’의 의미로 보고 관련 임상 자료를 소개하면서 분석가/치료사/임상감독자의 무의식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감한다.

**중심 단어** : 창조신화; 무의식의 창조성; 흑암; 원초적인 혼돈; 천지분리; 육지(섬); 적극적상상; 예술작업.

## 들어가는 글

창조신화(creation myth)<sup>1)</sup>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로

서 우주창조신화(또는 창세신화, cosmogony)와 신창조신화(theogony), 그리고 인간창조신화(anthropogony)로 구성 되어있다.<sup>2)</sup> 모든 문화권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창조신화는 전체 우주 존재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이자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신화와 달리 어떤 엄숙성(solemnity)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3)</sup>

대부분의 창조신화는 어둠이나 혼돈으로 시작된다.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둠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모르는 것이다. 폰 프란츠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신경증에 걸리기 쉽다고 말한다.<sup>4)</sup> “인간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접하게 되면 원형적인 투사를 한다.”<sup>5)</sup> 원형적인 정신의 내용물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보편적인 경험 및 조건들과 거기에 대응하는 정신의 패턴인 본능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창조신화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창조신화가 모르는 것(무의식)에 대한 불가사의한 생각과 개념에 근거를 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창조신화는 실제적인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 보다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인 깨달음의 기원을 묘사하는 무의식 및 전의식적(pre-conscious)과정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계를 전체로 혹은 내 주위환경을 인식하기 전에 무의식 안에서 많은

1) 국내에서 손진태가 처음으로 창세가, 그 다음으로 천지개벽신화, 창세시조신화, 창세신화가 되면서 창세신화가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고 창조신화와 병행해서 써도 좋은 용어이다.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 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p17.

2) 그러나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세 종류의 창조신화가 모두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포함되기도 하고 따로 다루기도 하고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3) Von Franz ML (1995):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1.

4) Ibid, p11.

5) Ibid, pp3-5.

6) “인간이 텅 빈 어둠을 탐구하려 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생명력 있는 형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투사는 계속된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38.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sup>7)</sup>

많은 민족의 창세기는 태초에 혼돈 혹은 흑암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다. 그러다가 빛이 출현한다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최초에 무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서 자아의식이 구분되거나 싹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의식은 자아의식을 탄생시킨 모체인 것이다.<sup>8)</sup>

아기의 탄생과 성장은 창조신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무의식 자체라 할 수 있지만 백지상태가 아니고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품고 있으나 아직 어둠속에 있거나 드러남이 미약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발휘하게 될 모든 정신활동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sup>9)</sup>

우리가 무엇을 인지한다는 것은 마치 창조신화에서 태초의 어둠 혹은 혼돈이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고 나서 세상이 만들어지듯이 아기가 성장한 뒤 의식(자아)의 분별력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세계의 기원을 기술한다고 생각해진 창조신화들은 차라리 인간의식의 기원에 관한 전의식적 과정의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과 섞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10)</sup>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하듯이 우리가 아기사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시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창조신화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한 개인의 아기사절, 즉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의식, 전의식의 내용물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아(나, 주체)가 무의식(나-아닌 것, 객체)과의 동일시에서 분리되는 의식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창조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자 무의식이 창조신화를 내보는 목적의 미라 할 수 있다.

7) Von Franz ML (1995):Ibid, p11.

8)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은 어떻게 자아가 위험한 무의식의 충동을 승화시키는냐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옳은 어떻게 자아가 무의식의 창조성을 받아들이느냐에 집중한다. ‘자기’와‘자기실현’의 개념은 무의식에 창조적 기능이 있다는 견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학설이다.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33-34.

9) 위의 책, p33.

10) Von Franz ML (1995): Ibid, p11.

### 1. 창조신화 모티브가 나타나는 조건

많은 문명의 창조신화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때마다 창조신화를 구송했고, 중세 초기에 새로운 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바이킹 족이나 앵글로 색슨족은 제단을 세우고 창조신화를 엄숙하게 이야기해 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 정복한 곳은 혼돈(무의식)이라 할 수 있고 창조신화 구송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의식)를 세우는 의례라 하겠다. 한국의 창조신화 중에 하나인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가 위협적일 수도 있는 자연에 의지해서 살던 제주도 사람들에게 의하여 전수되고 정월대보름과 팔월 대보름에 구송 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류문화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창조 신화들이 구송 되었던 것과 같이 개인의 정신의 경우도 신체적 위험이나 완전히 해리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무의식이 다른 형식으로 창조신화를 말한다. 폰 프란츠는 창조신화의 요소나 전형적인 모티브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체험 내용을 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정신분열증 발현을 예시하는 꿈이나 환상으로서 원자 폭발, 세계의 종말, 별들이 떨어짐 등의 세계의 파괴와 관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반대로 정신분열증 발현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정신분열증의 급성단계를 지나갈 때 환상과 꿈에 창조신화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현실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가가 창조신화 모티브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새로운 인격의 재건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융은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에는 무의식에 의한 자아 의식의 침해의 가능성의 위험을 안고 있던 밀러 양의 신의 창조를 주제로 하는 시들<sup>12)</sup>이 소개되어 있다. <창조주의 찬가>라는 시에서 “신이 최초로 음향을 창조하였을 때, 생겨났네 무수한 귀들이...” 그리고 “새벽 별들이 노래 불렀을 때”라는 시 구절은 밀턴의 실낙원을 기억나게 하고 빛과 사랑이 우주에 메아리 치는 창조의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들은 밀러 양이 정신분열증을 앓기 전 유럽여행을 하

11) Ibid, pp13-14.

1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5): C. G. 융 기본저작집 제7권,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pp69-76.

면서 저절로 떠올랐던 표상들을 표현한 것 중의 하나이다. 심리학적 유형에서 융은 “자아가 의식성의 운반 자(carrier)”<sup>13)</sup>이고 자아 없이는 의식성의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자아는 무의식에서 탄생한다. 그 속에 점유되어 있는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은 다시 삼키려고 하는 무의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요한다.

의식의 크고 작은 진보는 원초적 시원의 전체성과 전체 체계의 어떤 균형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창조적 과정, 의식의 태도 변화 등 모든 확장 과 변화와 관련된다고 융은 말한다.<sup>14)</sup> 창조신화 모티브는 무의식이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진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되고 의식이 크게 점프 하듯이 발전해 나아갈 때에 깨달음의 빛, 혹은 빛의 씨앗 등의 창조신화 모티브가 꿈에 나타난다. 마치 아동의 신체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이따금씩 갑자기 성장하듯 인간의 심리발달도 점프하듯이 급격하게 성장한다. 이렇듯 의식의 영역이 갑자기 확장되는 기간이 있고 의식의 확장이나 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조명(illumination)”이나 계시를 얻는 경험을 한다.<sup>15)</sup>

## 2. 창조신화와 분석심리학 관련 선행연구

창조신화와 관련되는 연구를 한 분석심리학자로서 노이만, 폰 프란츠, 하딩, 에딘저를 들 수 있다. 노이만(Neumann)<sup>16)</sup>은 생물학적으로 계승되어 온 계통 발생론적(phylogenetic)인 역사와 인간의식의 발달의 역사인 본체 발생론적(ontogenetic)인 역사의 행로가 자아의식의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노이만에 의하면 “창조신화는 전의식적 상태에서 첫 의식이 출현하는 원초적 사건을 다룬 것이고, 그로부터 의식이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자신의 힘을 확고히 하여 점차 정신의 주체로 등장하는 내용인 영웅신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13) Jung CG (1976):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700.

14) Ibid, p161.

15) Von Franz ML (1995): Ibid, pp13-14.

16) Neumann E (1954):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56): *The Great Mother*, Bollingen Foundation Series LIV, New York.

\_\_\_\_\_, Manheim R(translation) (1990): *The Child*, Shambhala, Boston.

다.<sup>17)</sup> 노이만의 연구는 의식성의 진화에서 차지하는 창조신화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

폰 프란츠는 여러 나라 특히 북미 인디언들이나 남태평양군도 등의 창조신화를 통해서 창조신화가 인간정신이 의식을 찾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과정이라는 점을 다루면서 자신의 경험을 포함한 간략한 임상사례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폰 프란츠는 인간정신의 의식성에 대한 자각으로서 창조신화의 의미가 단순히 인류의 정신 발달사의 초기에 형성된 신화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창조 모티브를 무의식에서 출현하는 의식, 즉 모르는 것에서 세상을 의식하게 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18)</sup> 폰 프란츠의 연구는 창조신화가 인간정신이 필요로 할 때 창조, 또는 재창조되는 것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분석심리학적인 창조신화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임상사례와 연결하기 보다는 원형적인 인간 정신의 현상을 서술한 것에 비하여, 하딩(Harding)은 고대 바빌로니아 창조신화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창조 신화의 상징성이 인류의 의식발달단계와 상통한다는 것을 실제적인 사례와 연결했다.<sup>19)</sup> 하딩은 〈부모상〉이라는 저서에서 고대 바빌로니아 창조신화에 나타나는 원초적 부모상인 티아맛과 압수의 대결을 태초의 혼돈으로 보았고, 마르둑이 티아맛을 제거하는 과정을 아이, 자아가 무의식을 극복하고 분화되는 의식성의 발달과정으로 보았다. 하딩은 신화와 의식발달에 대하여 노이만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창조신화를 자아가 무의식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갈등의 이야기로서 나(I)와 나 아닌(not-I) 것이 분리되는 것과 연관된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노이만과 다르다.<sup>20)</sup>

에딘저는 하딩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인간 정신 속의 원형들이 신화를 구성하는 중심이라는 것과, 인간정신의 창조성이 창조신화와 무의식의 의식화와

17) Neumann E (1954): Ibid.

18) Von Franz ML (1995): Ibid.

19) Harding E (1949): *An Old Tales Retold: Creation Myths of Babylonia*, Spring, The Analytical Psychology Club of N.Y. Inc., New Orleans, Louisiana, pp57-84.

20) Harding E (1964): *The Parental Image: Its Injury and Reconstruction*, A Study in Analytical Psychology, G. P. Putnam's Sons, for The C. G. Jung Found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p35.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sup>21)</sup> 에딩저가 말하는 의식화 과정은 보는 것(seeing)과 보여지는 것(being seen), 아는 것(knowing)과 알려지는 것(being known)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자아의 견지에서서는 수동적이 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진정한 증인(witness)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기(Self), 즉 무의식의 견지 역시 아는 것(to know)도 필요하지만 알려지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자기를 아는 것의 주체(knowing subject)임과 동시에 알아진 객체(known object)가 되게 하는 것이 자아의 의무라고 했다. 창조신화를 인간정신의 창조성과 연관하여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명료화한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

한국의 창조신화는 이성적인 것을 강조했던 유학자들의 영향으로 문헌 신화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주로 서사무가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sup>22)</sup> 국내의 창조신화에 대한 연구는 장주근<sup>23)</sup>과 김열규<sup>24)</sup>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들어와서는 임석재,<sup>25)</sup> 서대석,<sup>26)</sup> 김현선<sup>27)</sup> 등 인문학자들이 주로 구송된 무가들<sup>28)</sup>을 수집한 자료들을 특정한 관점으로 분류하거나 신화소의 변이과정과 인접문화권이나 세계창조신화와 연관성에 대한 연구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무가를 연구한 김열규<sup>29)</sup>와, 창조신화를 우주창조형과 천지개벽형의 신화로 나누고 창조신화가 태초의 혼돈이 분리되어 만물이 생겨 났다고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조명한 장주근의 연구가 돋보인다.<sup>30)</sup>

21) Edinger E, 김진숙(역) (2016): 《의식의 창조, 이 시대 융의 신화》, 돈화문출판사, 서울, p35.

22) 장주근 (1952): 《한국의 신화》, 성문각, 서울, pp2-3.

23) 위의 책

24) 김열규 (1976): 《한국의 신화》, 일조각, 서울.

25) 임석재 (1991): “우리나라의 天地開闢神話”, 《比較民俗學》, 7, 비교민속학회, 안동, pp37-87.

26) 서대석 (1997): 《한국의 신화》, 집문당.

27)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pp11-24.

28)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와 본토의 <창세가>는 창조신화로서 갖춰야 할 우주창조, 신 창조, 인간창조 모티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29) 김열규 (1976): 앞의 책.

30) 청무에 밤(夜, Nyx)과 그 형제인 암흑(暗黒, Erebus)을 어둠의 양면 즉 천상의 밤과 지하의 암흑이고 이 두 본체가 공허(空虛, Chaos)속에 병존했으며 이 공허는 무(無)가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조직(未組織)의 공허로서 힘에 넘치는 세계의 모태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하늘은 우라노스(Uranos), 땅은 가이아(Gaia)로서 여기 첫 대의 신이 생기고 나누어진 공허 속에서 사랑(愛, -Eros)이 탄생되어 정신적인 힘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심리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장주근 (1952): 앞의 책.



국내에서 창조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다른 신화나 민담에 대한 연구보다 그 양이 많지 않고 무의식의 창조성과 자기실현과 연관된 자료에서 편린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창조신화 및 개벽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으로는 C.G. 융의 ‘자기’와 ‘자기실현’ 관점에서 창조신화에서 개벽이 되는 것이 자아가 무의식에서 탄생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이부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31)</sup> 이유경은 창조신화로 분류되는 신화들이 표상하고 있는 심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명을 하는 연구에서 창조신화와 연관되는 전형적인 심상들이 의식의 탄생과 관련된 심리학적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융과 분석심리학 관련 문헌을 통하여 개관하였다.<sup>32)</sup> 연구자는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sup>33)</sup> 우울증 사례와 창조신화<sup>34)</sup> 꿈, 민담, 모래놀이 치료에 나타나는 홍수상징,<sup>35)</sup> 섬 출현 현상의 임상적 이해,<sup>36)</sup> 사례 중심으로 연구하였다.<sup>37)</sup> 융은 창조신화는 전의식 혹은 무의식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호하여 의식적인 용어로 다루기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물이 의식영역에서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서술되어야 하며 “철학적인 견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의식영역에서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인 개개인의 투사 체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sup>38)</sup>

본 논문의 취지는 창조신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흑암/혼돈, 천지개벽/분리, 육지창조와 관련된 신화의 분석심리학적인 의미를 살피고 관련된다고 보는 피분석자의 꿈 및 임상현장에서 관찰한 자료와 연관시키면서 창조신화가

- 
- 31)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33-35.  
 32)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 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pp291-343.  
 33) 김진숙 (2012):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 융 연구원 전문과정수료 논문》.  
 34) \_\_\_\_\_ (2013): 창조신화관점에서 본 우울증 사례,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35) \_\_\_\_\_ (2015): 모래놀이에서 나타나는 섬 출현의 임상적 이해, 《한국표현예술치료심리협회》 특강, 명지대학교.  
 36) \_\_\_\_\_ (2016): 꿈, 민담, 모래놀이 치료에 나타나는 홍수상징,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특강, 동국대학교.  
 37) Kim JS (2016): Clinical Implication of Images of Island: Based on Dreams, Sandtrays and Artwork of Four Korean Women. IAAP, Congress에서 발표, 김진숙 (2017):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섬’ 상징의 임상적 적용: 꿈, 모래상자, 그림작업에 출현한 섬 이미지 중심으로”, 《심성연구》, 32(1), pp1-16.  
 3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2004): 앞의 책, p38.

무의식에서 자아가 분리되는 의식화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서술하고, 적극적인 상상과 미술 등 예술작업이 무의식의 창조 및 치유적 기능을 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있다.

## 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 1. 흑암과 원초적인 혼돈(*Massa confusa*)

깨우침의 우주성(Cosmogony Awakening)을 보여주기 위하여 폰 프란츠가 소개한 에스키모의 창조신화 <독수리의 선물(The Eagle's Gift)>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의식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고 있다.<sup>39)</sup> 툴롱어사크(Tulungersaq) 혹은 아버지 까마귀(Father Raven)이라고 부른 존재는 모든 생명과 인간을 창조한 기원으로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 그는 까마귀(raven)이 아니고 사람 모습이었으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둠 속 즉 무의식상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융은 심리학적으로 태초의 혼돈은 주체와 객체가 분화되지 못한 최초의 무의식 상태/심리적인 일치/고태적 동일시(archaic identity)는 무의식적인 것으로 유아나 원시인의 정신의 특징인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sup>40)</sup>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말하자면 모두 어느 정도 의식될 수 있거나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의식되

39) Von Franz ML (1995): Ibid., pp28-37.

40) Jung CG (1976): Ibid.

있고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의식될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 1) 흑암의 심리학적 의미

대부분의 창조신화에서 태초<sup>42)</sup>는 흑암과 혼돈으로 서술된다. 매일 반복되는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는 일출의 신비가 창조신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sup>43)</sup>에서 구송하는 세상창조 대목이다.

태초에 세상은 혼돈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에 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甲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한 끝이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乙丑)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한 끝이 축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흑암은 혼돈, 탄생, 창조, 귀신의 시간, 도둑, 흉사, 공포, 새 생명의 배태, 고통, 음, 여성, 여유, 불명, 금기, 귀신의 무대, 절 망, 죽음, 안식, 환희, 암흑, 퇴행, 모성, 밀회의 시간을 뜻한다. 낮이 의식의 시간이라면 밤은 무의식의 시간이며 혼돈으로서 암흑이 새 생명이 배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자 모성, 풍요 그리고 밀회의 시간으로 암흑과 어둠의 시간으로 잠, 휴식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다.<sup>44)</sup> 이러한 밤은 낮에 그냥 놀다가 맞는 시간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어둠이 다가온 한참 뒤까지 열심히 전체를 위한 목표를 향해 일하다가 지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휴식의 시간이자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무의식을 의미하는 어둠속에서 에스키모창조자가 더듬거리면서 조금씩 깨우쳐가는 긴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위환경이나 세계를 전체로 인식하

41)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일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44.

42) 태초(太初)는 세계의 시작 또는 원기의 시작이고 혼돈(渾-흐릴 혼, 섞일 혼 沌-기운 덩어리 둔)의 의미인 chas를 “천지창조 이전의 혼란, 무질서, 대혼란”으로서,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우주창조, 천지만물, 완전체계 및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smos와 반대이다. (영한 옛센스 사전)

43) 천지왕 본풀이는 제주도의 큰 굿의 맨 먼저 시행되는 재차(祭次)인 초감제(初監祭) 때에 불려져 진다. 본 풀이의 본은 본래, 본류, 근본 등의 의미이고 풀이는 해석, 해설, 해명, 설명 등의 뜻이다. 본풀이는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을 향해 노래 부르는 신의 이야기로서, 신의 근본, 내력, 행적 등을 해석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이자 신화라 할 수 있다.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서울, p285.

44) 한국문화상징평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서울, pp256-259.

기 이전에 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꿈과 무의식의 자료에서 이러한 인식 이전의 전의식의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고 현실에서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끌림에 의하여 뭔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둠속에 헤매거나 장님이 되는 꿈은 삶의 전환점에 놓인 사람들의 꿈에 자주 등장한다.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일상이 붕괴된 중년여성의 분석초기에 연속적으로 꾸는 꿈이다.

꿈에서 눈이 아파서 누워 있다. 눈이 안 보였다 (답답했다). 깜깜한 밤,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었다.<sup>45)</sup>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어둠 속 즉 창조신화의 태초의 암흑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민담에서 주인공이 눈을 잃는다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의식성이 차단된 상태로 창조신화의 ‘흑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절망스러움의 표현이다. 어둠 속에 한줄기 빛, 희망이 있다는 표현과.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의 광복절은 어둠에서 빛/해방을 의미한다. 어둠속에서 눈앞이 캄캄했던 여성의 경우, 동그란 빛이 나타나 갈 길을 비쳐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절망적이던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극한 상황이나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중에 눈이 안보였다가 안전감을 확보했을 때 보게 되는 경우도 생각한다. 장님이 됨으로 인해 외계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의미라 사료된다. 마태복음 4장1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 이렇게 말씀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 2) 연금술에서 흑암은 니그레도(Nigredo)

흑암과 원초적인 혼돈은 물질에 간혀 있는 영을 구출하는 연금술 공정에서 ‘작업’(opus) 또는 철학자의 돌의 추출을 위해 선제 되어야 하는 ‘원질료’(prima materia)와 같이 더럽거나 비천한 모습인 동시에 신성하고 고귀한 속성을 가지는 동

45) 창조신화관점에서 본 우울증 사례 《한국분석심리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사례를 발췌한 것임.

시에 언제 어디서나 편재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국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융(Jung)은 1952년의 인터뷰에서 연금술 작업에 대한 훌륭한 요약을 했다. 연금술은 우주적이며, 실험실적 용어로서의 정신적(spiritual)인 드라마의 투사를 대변한다. 이 ‘위대한 작업’(opus magnum)은 인간 영혼의 구조와 우주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이 작업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뒤덮여 있다. 즉 연금술적 작업은 위험하다. 시작을 하면 바로, 당신은 “용(dragon)”을 만나며, 지하의 정령(spirit)과 “악마” 혹은 연금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암흑” 곧 니그레도 [nigredo (라틴어)blackening]를 만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 낸다.<sup>46)</sup> 흑암은 연금술에서 부정적인 죽음(mortificatio)공정에 해당하는 검게 되는 니그레도(nigredo)와 관련된다. 모든 창조작업에 선행되는 우울이나 불안은 연금술의 니그레도의 장소로서 창조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둠 속을 헤매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으로 들어가게 한다.<sup>47)</sup>

분석심리학적으로 우울은 무의식의 내용물이 자아 콤플렉스로 접근하게 되면서 다른 입자들에 영향을 미쳐서 리비도를 끌어당겨 자아가 기분이 저조하고 피곤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목적의미는 의식의 수준을 낮추어야 무의식의 창조과정이 배열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식을 내리눌러서(depress)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인 우울(depression)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48)</sup> 우울이나 불안은 머물기 힘든 장소이지만 연금술 문헌은 검음(blackness)은 흰 것이 되기 위한 개조의 신호이자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 검음의 행복한 문이며, 참으로 영광스러운 변화의 통로로구나. 그러므로 누구든 이 기술(연금술)에 전념하는 자는 오직 이 비밀을 알기 위해 연구하라.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비밀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모든 것에 무지하기 때문이요”라고 현자는 외친다.<sup>49)</sup>

### 3) 플레로마/우로보로스로서의 원초적인 혼돈

플레로마(pleroma)는 신지학에서 유래하는 용어로서 아무것도 없으면서(無)

46)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175.

47) Von Franz ML (1995): Ibid, p4.

48) Ibid, p211.

49)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178.

모든 것이 있는(有) 것을 의미한다. 융은 붉은 책을 집필하던 당시인 1913년에서 1917년에 신지학에 심취하게 되었고 <죽은 자를 향한 일곱 가지 說法>을 집필하게 되는데 특히 신지학자 바질리테스(기원전 200년초)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다. 설법 I에서 융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있는 플레로마 속에서는 모든 사고와 존재가 정지되는데 영원하고 무궁한 것은 아무런 성질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속엔 아무런 성질도 없다. 어떤 성질이 있다면 그건 플레로마와 구별될 것이고 구별될 만한 성질을 지닌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플레로마는 크레아투르(creatur, 생물, 창조물)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하였다.<sup>50)</sup> 노이만은 태초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경험을 개인이 수동적으로 점유 당하고, 플레로마는 “스스로의 꼬리를 문 자”라는 의미의 우로보로스(uroboros)의 경험에 해당한다고 했다.<sup>51)</sup> 우로보로스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원형으로서, Leviathan이나 Aion 또는 Oceanus, 그리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이라는 원초적인 존재(Primal Being)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sup>52)</sup> 유아기의 경험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개인들의 생의 초기의 경험이자 자아가 탄생하기 이전의 경험으로써 노이만은 모든 인류들의 지나온 오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로보로스 상태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보았다.<sup>53)</sup> 심리학적으로 태초의 혼돈과 우로보로스 상태는 배아와 같은 자아가 신체와 정신이 생명활동 속에 하나로 융합되어 있던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이 분명하게 나뉘기 전인 원초적 상태인 고태적인 동일시(archaic identity)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집단적 무의식 상태와 동일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sup>54)</sup>

50) 1913년에서 1917년 사이에 융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죽은 자를 향한 일곱 가지 說法>은 기원전 200년초 신지학자 바질리테스에 의하여 저술되었는데 야훼는 이 글이 훗날 융의 사상을 앞지르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Jaffe A(edit), 이부영(역) (1989):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434.

51) Neumann E (1954): Ibid, p27.

52) 고대 Kneph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된 신성한 대상이었던 원초적인 뱀(Primal Snake)” 우로보로스는 요한계시록과 그노시스학파(신지학)의 문헌, 뿐만 아니라 로마의 syncretists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나바호 인디안들의 모래그림, Giotto, 이집트, 아프리카, 멕시코, 인도에서도 발견되고, 집시들의 목걸이와 연금술의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Ibid, p10.

53) Ibid, p.12.

54) 융은 심리적인 유형론에서 고태적인 동일시는 동등한 것(equation)이 아니라 선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a priori likeness)이고 이것은 의식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Jung CG (1976): Ibid, ff. 741-742.

우로보로스 적인 뱀으로부터 분리되는 모티브를 보여주는 여성의 꿈으로 분석 2달 후 처음으로 가지고 온 꿈이다.

한 마리의 뱀(구렁이같이 큰)이 창문으로 날아서 쓱 들어와 내 몸을 타고 갑아 올라와서 움직일 수가 없다. 놀라지 말아야지. 시체처럼 누워있었는데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속으로 나를 해치려 하지는 않는구나... 밭에서 위로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내 옆에서 허물을 벗는다. 처음은 색깔이 없었는데, 검정, 연회색의 색이 나타났다. 허물은 안에는 비닐 같은 막이 있고 바깥은 마치 계란껍질 같았다. 뱀을 무서워하고 허물 벗는 것은 좀 자란 것 같고 구렁이는 엄마를 연상했다.<sup>55)</sup>

유아기, 즉 개인적인 삶의 초기 단계는 정상적으로 무의식적인 정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차이가 없는 무의식 상태(원초적인 혼돈)로서, 마치 인간이 에텐 동산 같은 낙원에 거하고 있는 상태로써 낙원은 세상 또는 원기(元氣)의 시작으로 심리적인 자궁의 의미를 가진다. 이 단계의 자아는 “아직 탄생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어둠은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품고 있다. 이러한 씨앗들은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나 아직은 어둠 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거나 그 드러남이 극히 미약하여 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자아가 있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아는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sup>56)</sup>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돈 또는 우로보로스 상태의 미약한 자아의 경험은 원시인이나 유아들에게는 정상적 경험으로써 모두가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고태적인 동일시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경우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sup>57)</sup>

#### 4) 어비스/심연(深淵)으로서의 혼돈

어비스(abyss)는 라틴어 *abyssus* “깊은 구덩이”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Greek *abyssos (limnē)* “깊은 (웅덩이)”에서 유래되었다. ‘어비스(abyss)’란 밑이 없는

55) Kim JS (2016): *Clinical Implication of Images of Island: Based on Dreams, Sandtrays and Artwork of Four Korean Women*. IAAP, Congress에서 세부적으로 발표, Proceeding Book (2017), 김진숙 (2017):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섬’상징의 임상적 적용: 꿈, 모래상자, 그림작업에 출현한 섬 이미지 중심으로”, 《심성연구》, 32(1).

56) 이부영 (2002): 앞의 책, p33.

57) Von Franz ML (1995): Ibid, p4.

공간이란 뜻으로, 밀턴(Milton)이 상상한 chaos(혼돈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고 카오스(Chaos)의 어원은 그리스어 *khaos*이며 ‘크게 벌린 입’이라는 뜻이었다.<sup>58)</sup> 마치 무엇이나 삼켜 버린다는 검은 심연과 같은 이미지로서 깊이 갈라졌거나 깊은 구멍. 헤아릴 수 없는 것. 무한한 것(시간 등), 밑바닥, 극도(치욕 절망 파산 등)의 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하딩은 심리적인 자궁인 플레로마의 강한 유혹으로 인하여 분리하지 못한 경우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했다.<sup>59)</sup> 이 상황을 묘사하는 신화에서 어머니는 주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머지 그를 떠나도록 두지 않고 그를 그녀의 연인으로 유지시키려 하는 사랑의 여신들 중 하나로 묘사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아들의 경우 완전히 간혀진 느낌이고 어찌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의 자살배경에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두각을 드러낸 유능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sup>60)</sup>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의 재현상을 심연에 갇힌 상황으로 연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흑암/혼돈이 창조를 예비하는 시간으로서 의기소침, 상실, 고통으로 경험될 수 있으나 자기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심연에 둘러싸인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성인의 경우도 삶에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심연 모티브의 꿈이 나타나는 듯하다. 오래 전 저자가 뉴욕에서 용 분석을 시작했을 당시 어둠 속 심연 같은 곳에 있는 외줄을 타고 건너가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꿈을 꾸었던 적이 있다. 용 분석가 수련과정에서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높으면서 난간도 없는 오직 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돌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아래에는 거센 물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세계 불어서 무서워서 엎드려서 기어가야 했음. 한참 가니 다리아래에 돌로 지어진 오래된 성당이나 성들의 뾰족한 지붕들이 보였는데 그만큼 다리가 높ی 있었던 것 같음. 차츰 다리에 난간도 생기고 석조 구조물로 이어져서 무사히 건널 수 있음. 꿈에서 무슨 다리가 이렇게 긴가 하면서 투덜거렸음.

58) Oxford Languages Dictionary.

59) Harding E (1964): Ibid, p8.

60) Ibid, p9.



폰 프란츠가 소개한 ‘어둠 속의 에스키모의 창조자’ 역시 진흙을 만지면서 기어 다니면서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조심스럽게 흙 위를 기어가다가 위험한 심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뭔가를 던져서 그 깊이를 확인하고 나서 그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기어 다닌다. 에스키모 창조자의 조심스러운 탐색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2. 천지개벽(天地開闢)/분리의 심리학적 의미

개벽은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을 의미하며 개벽되었다는 뜻은 천지가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창조신화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세계 부모의 사이가 벌어져야 한다고 한다.<sup>61)</sup>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은 원시인들에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들은 하늘이 땅에 붙어서 함께 누워있든지 약간 땅에 떨어져 있었으며 그 공간이 사람들이 서서 걷지 못할 정도로 좁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이 팽배한 곳에서는 하늘이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창공을 만든 신이나 영웅이 등장하고 그들이 하늘을 밀어 올림으로서 하늘이 위로 뜨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sup>62)</sup>

분석심리학적으로 천지개벽(분리)“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이 되기 전에 의식의 역치(threshold)를 건드렸을 때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원성이나 대극 성 없이 의식적인 과정 즉 새로운 세상이 창출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 두 부분으로 분리되는 것은 모든 의식적 깨달음에 선행되어야 한다.”<sup>63)</sup>고 하겠다.

세계관을 넓히기 위하여 오랫동안 꿈 분석에 집중해오던 중년남성이 명상 중에 본 환상이다.

20-30미터 크기의 철광석 같은 검은 바위 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중간에 금이 가면서 간극이 생기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현실에서 사물의 앞면만 보다가 측면도 보게 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참 묘하다고 했다.

61) Von Franz ML (1995): Ibid, p239.

62) Neuman E (1954): Ibid, p103.

63) Von Franz ML (1995): Ibid, p1.

천지가 쪼개진 사이에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인간의 의식적인 자아가 살아가고 의식성이 거하는 공간은 대극적인 것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둘로 쪼개진다는 것은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에서 동일시해 오던 것에서 떨어져 나오면 일어나는 것으로 심리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크라테스 이전시대 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양극성(enantia)과 피타고라스의 10개의 양극성<sup>64)</sup>도 하나에서 대극적인 둘이 되는 분리과정으로서 서구적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의식성을 획득하려면 대극적인 요소들을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의식성의 증대를 위하여 주체는 객체로부터 반복해서 분리되어야 한다”<sup>65)</sup>는 것이다.

### 1) 천지분리로 만들어지는 세상

이집트 창조신화에서 천지부모인 겹(Gap)과 누트(Nut)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공기로 의인화된 이름으로서 슈(Shu)가 하늘을 떠 받들고 서 있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슈는 종종 Nut (하늘)을 칭송하여 팔을 들고 Geb (땅)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수염 난 모습의 남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의 머리에는 타조의 털, 상형문자로 표현된 그의 이름, 혹은 누트를 지지하는 네 개의 기둥들을 상징하는 네 개의 자두(plums)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 또는 공기의 기둥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슈의 이름은 또한 ‘비워지다(to be empty)’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그를 신격화된 비워 짐(deified emptiness)으로 보기도 한다. 슈는 ‘위로 들어 올린다(to raise)’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의 결과로서의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천지를 분리시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sup>66)</sup> 에 던져는 슈가 천지를 분리하기 전에 그가 겹과 누트와 분리됨을 달성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슈는 대극적인 것을 쪼개는 원초적 자아(primordial ego)로서 의식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자라고 해석한 것은 흥미롭다.<sup>67)</sup>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대목<sup>68)</sup>이나 한국의 본토<창

64) 1) 제한과 무제한, 2) 이상함과 평범함, 3) 하나와 다수, 4) 오른쪽과 왼쪽, 5) 남과 여, 6) 쉽고 움직임, 7) 직선과 곡선, 8) 빛과 어둠, 9) 선과 악, 10) 정방형 직사각형,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222.

65) 위의 책, p.222.

66) Von Franz ML (1995): Ibid., pp185-186.

67) Ibid, p185.

68) 현용준 (1976): 앞의 책.

세가)에서 보여주는 하늘과 땅은 처음에 붙어 있는 상황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도수문장이 4개의 구리기둥을 세운다는 방법은 다시 붙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듯하다.<sup>69)</sup>

마오리족의 창조신화에서 천상의 신 랑기(Rangi)와 대지의 신 파파(Papa)이 붙어있어서 만물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빛을 찾을 방도를 찾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지만 어둠은 계속되었다. 최초의 밤이 첫 번째에서... 천 번째에 이르기까지 그 어둠만 존재했다. 그들을 때어 놓기 위한 여러 형태의 논의와 도전이 있었고 마침내 숲의 신 타네(Tame)-말리우타(Maliuta)이 나섰는데 그의 팔이 너무 약하여 머리가 아래로 수그러졌으나 위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려 그들을 서로 찢어 놓았다 천상의 신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냈고 대지의 신은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질렀다. ...마침내 밤이 낮과 밤이 분리된 것이다.<sup>70)</sup> 의존적인 상태에 있던 존재가 자신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파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을 듯하다.

## 2)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 만들어지는 세상

체로키 부족(Cherokee)의 창조신화에서는 태초에 동물들은 하늘나라에 모여 살았고 모든 것은 홍수로 물에 잠겨 있었다. 상황을 살피도록 물방개를 내려 보냈고, 에스키모 창조자인 Father Raven은 먼저 천상을 창조한 다음 지상을 창조한다. 북미 인디언의 이로쿼이(Iroquois)부족은 하늘의 옹베(Ongwe)라고 하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었고 임신한 여인을 지상으로 떨어트려서 세상을 만들었다.<sup>71)</sup>

단군신화에서도 비슷한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 환인(桓因)과 그 아들 환웅(桓雄), 그리고 환웅의 아들인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삼대에 걸친 안정적인 구도에서 단군이 아버지 환인의 도움과 허락을 얻어서 하늘에서 태백산(太白山: 지금의 백두산)으로 내려와 신단수(神壇樹) 아래 신시(神市)를 베풀고는

69) 1931년 손진태가 평안북도 강계에서 박수 전명수의 구연을 채록한 것이 있는데 <창세가>, <시루말>, <쌍굿> 같은 서사무가 자료들이 태초에 벌어진 격동의 자취를 전해주고 있다.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미륵(彌勒)님이 탄생(誕生)한즉/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떨어지지 아니하소야,/하늘은 북개 꼭지처럼 도드라지고/땅은 사(四)귀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70) Neumann E (1954): Ibid, pp137-138.

71) Von Franz ML (1995): Ibid, pp38-39.

스스로 환웅(단군)천왕이라 칭하면서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된다.<sup>72)</sup>

고대 스메르 문명의 점토판에 서사문헌 천상의 여신 인나나가 땅으로 내려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sup>73)</sup> 한국 무속의 본풀이로 전승되어온 바리공주의 여러 유형 중에 길대왕비의 꿈에 나타난 바리공주가 자신이 옥황상제의 딸로서 죄를 지어서 인간세상으로 가니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의 지상으로의 추락도 동일시하던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는 측면에서 하늘(선, 정신적인 것)에서 땅(악, 육체적인 것)이라는 대극이 갈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내려와야 하는 것과 연관된 꿈, 적극적 상상 작업에서 이러한 모티브들이 나타난다. 학위논문을 미루어 오고 있던 여성이 적극적인 상상에서 달나라에 머물던 여신이 땅으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어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줄이 짧아서 허공에 매달렸으나 용기를 내서 눈을 감고 뛰어내렸고.... 연극배우이기도 했던 그녀는 그 후 논문에 집중하여 마무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sup>74)</sup>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의 심리화적인 의미는 정신의 영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하늘(원형적/정신적)에서 현실 감지할 수 있는 땅의 대극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고 그 사이에 자아영역인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긴 추락과정의 마지막 결과로서 도달하거나 창조된 지상은, 심리학적 언어로 의식의 영역으로 부르는 곳이다.<sup>75)</sup> 용은 인간의 의식을 자기장(magnetic field)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다. 내용이 의식의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연상(association)의 거미망에 빠져 들어간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자아 콤플렉스와 연관이 되고, 자아 콤플렉스를 통해 나의 의식의 다른 모든 순간적인 의식의 내용과 연결된다.<sup>76)</sup>

현대인의 꿈에 산, 계단 등을 내려가는 모티브가 많이 나온다. 계단 관련 꿈을 자주 꾸던 전문분야 학위를 마무리하고 있는 여성의 꿈이다.

72) 김열규, 한국정신문화원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3) Perera SB, 김소영 (역) (2014): 《여신에게로 내려가기》, 돈화문출판사, 서울.

74) 저자가 뉴욕대학원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기획 실시한 실험집단치료 〈Creative Journey Through Dream〉에 참여자 중 한 명. 김진숙 (2000): 《사마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서울에 세부적으로 소개한 사례 중 하나임.

75) Von Franz ML (1995): Ibid, p57.

76) Ibid, p57.

건물 옥상에 있는 초등학교 놀이터 같은 곳에 머물다가 내려갈 때가 되어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로 낮고 어둡고 오래된 나선형의 계단을 통과하여 지상에 도착하여 모두가 실패하는 뽑기 같은 과제를 마치고 육면체상자에 든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옥상은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초등학교 놀이터 같은 옥상에서 뽑기라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업과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선물이 주어지는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점에서 연관된다고 본다.

### 3) 산 이동 설화와 천지개벽

국내에 전승되는 천지개벽신화 대부분이 산 이동 신화<sup>77)</sup>로서 채집된 숫자가 수백이고 한지역에서도 수십개가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의미가 궁금했던 적이 있다. 특히 산의 이동방식이 산이 스스로 걸어왔거나 홍수에 의해 떠내려 오는 것이 많고 산이 날아가거나 거인이 산을 등에 메고 가거나 회초리로 산을 몰고 가고 이동하는 목적은 과거를 보거나 벼슬을 하기 위하여 큰 바위들이나 많은 바위들은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가 멈춘 것 등 다양한 점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왔다.

설화의 대상이 되는 산들은 주로 주변환경과 다른 특이하게 생긴 산들이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접하면 원초적인 투사를 하게 된다. 폰 프란츠가 서술한 창조신화에서 나타나는 원초적인 투사에서 통각(apperception)되는 과정을 산 이동 설화에 적용해 본다.

인간(자아)는 이상하게 생긴 산(대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산이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초적인 투사가 일어난다. 원형이 무의식에 배열되지만 자아는 인식하지 못하고 원형적인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만을 안다. 객체에 대한 생각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투사의 철회가 일어나지만 설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 이동 설화는 산이 원래 머물던 곳(근원/무의식)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천지개벽/분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설화에서 산이 이동하는

77) 산 이동 설화는 기원담(起源譚)에 속하는 문헌설화로서 『동국여지승람』 권34 임피조(臨陂條)에 공주산(公州山)의 지명 유래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전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문화대백과사전). 이영수 (2008): “인천지역의 산 이동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안동, pp477-508.

다양한 방식과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 4) 천지분리의 동인

원초적인 혼돈/플레로마는 사고와 존재가 정지된 평형 상태(equipoise state) 영역이다. 플라톤은 테마이고서(Timaeus)에서 “평형 상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인 힘에 의해 이리 저리 불규칙하게 흔들리게 되고 내용물이 분리된다”<sup>78)</sup>고 하였다. 인간정신의 경우도 자연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원초적인 전체성/평형상태에서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흔들림이 플레로마/고태적 동일시의 평화를 깨트리고 주체와 객체가 분리하게 된다고 하겠다.

폰 프란츠는 여러 문화권의 창조신화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흔들림은 내적 사실들을 보도록 강요하는 어떤 정신의 신비로운 측면이 두려움,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기분(mood)에 간여하고 이러한 정서적인 기분이 세상창조를 일어나게 했다고 한다.<sup>79)</sup> 이러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은 어떤 대상과 관련되기 보다는 완전한 침묵이나 고독 속에 처했을 때의 경험으로 이러한 두려움은 무의식의 의식의 공허함을 뚫고 들어오는 현상이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평정한 상태가 될 때 비합리적인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둘이 되는 현상인 “아트만-푸루샤가 남편과 아내(둘)로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sup>80)</sup>

두려움과 외로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초보적인 공황이나 공포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든가 창조적인 무언가가 등장하도록 놓아둘 수가 없다. 우울과 불안은 창조성에 이르는 하나의 장벽으로서 미지의 존재에 압도당하는 끔찍한 순간이 두려워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말을 거는 적극적 명상 같은 것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울음으로 세상을 창조한 신화들도 있다. 아프리카 발루바(Baluba) 부족의 창조신화의 태초는 한 텅 빈 평원이었고 숲도, 풀도, 나무도 없어 모든 동물들이 울었고 그 울음이 새 세상을 만들었다. 북아메리카 앨곤퀸(Algonquin) 부족의

78) Edinger E, 김진숙 (역) (2015) 앞의 책, p224.

79)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마이두(Maidu)의 창조신화는 창조자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창조를 했고, 위네. 바고(Winnebago)와 클라매스(Klamath)와 잉카부족의 창조자와 인도의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Brihadaranyaka Upanishad)는 아트만(Atman)이 외롭고 두렵고, 아무 낙이 없어서 창조를 했다고 한다 Von Franz ML (1995): Ibid, p187.

80) Ibid, p188.

창조신화에는 태초에 물 밖에 없었는데 창조자가 배 안에서 올라가 그 울음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된다.<sup>81)</sup> 분석과정에서 올라 나서부터 갑자기 창조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치 연금술에서 광물이 용해되어야 변환이 가능하듯이 울음은 먼저 의식을 용해하여 무의식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폰 프란츠는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녹이는 액화(*liquefactio*) 공정 동안 자신들이 슬프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는 *afflictio animae* 상태에 있고 울음이 의미하는 무엇이 마음 속을 비추고 그것을 통해 무의식의 창조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sup>82)</sup>고 하였다.

### 5) 연금술에서 ‘천지개벽’은 분리(*Separatio*)

천지를 분리시키는 조물주의 첫 번째 창조 행위는 연금술의 문헌에서 ‘철학자의 알을 자름’이라는 연금술의 표장(標章, emblem)과 연관된다. 알은 전의식적 전체성의 의미를 가지며 연금술 적인 알의 분리는 전의식차원에서의 단위로서의 천지부모와 분리라는 창조신화의 천지개벽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알은 미분화 된 원시정신의 특징인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로서 고태적인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다는 의미가 된다. 알이 분리된다는 것의 심리학적 의미는 심리적인 일치감(identity)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대상)가 분리된다는 것이다”<sup>83)</sup>

태초의 혼돈이 천지로 분리되는 과정은 연금술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과정들을 떠올리게 한다. “연금술에서 원질료(*prima materia*)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유한 상반되거나 미분화된 혼합물로서 분리의 과정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금술의 문헌에 의하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초보적인 분리(*elemental separatio*)에 해당된다. 연금술서 에메랄드경전(Emerald Tablet)에는 ‘진지하고 부드럽게 불로부터 대지를 정교함, 그리고 고밀도(dense)로부터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함(subtle)을 분리하라.’고 한다.”<sup>84)</sup> 두 개로 분할하는 분리의 심리

81) Ibid, pp194-195.

82) Ibid, p196.

83) 김진숙 (2012):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 용 연구원 전문과정수로 논문》.

84)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p222-223.

학적인 의미는 대극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의식이 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6) 크레아투르(Creatur)와 혼돈의 죽음

태아가 만삭이 되면 출산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차원도 근원적인 자궁/낙원에서 벗어나 서서히 무의식의 영향으로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조급한 분리 또는 지연된 분리가 존재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초기 정신적인 발달의 전(全)과정인 객체적인 정신(objective psyche)과 동일시하고 있는 근원적인 자궁 플레로마에서 구체화된 크레아투르(창조물)의 관계에 대하여 융은 《죽은 자를 위한 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영원하며 무한한 플레로마의 일부이지만 이를 분별하지 않으면 크레아투르의 죽음의 위험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대극 쌍들의 성격을 지닌 플레로마의 성질을 구별(분리)해야 한다.”<sup>85)</sup>고 하면서 분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폰 프란츠는 성급한 분리는 태초/혼돈이 가지는 앞선 지식 또는 아직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지식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 한결같이 성급하게 벗어나거나 떠내 보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슬람 문헌과 장자의 우화를 인용<sup>86)</sup>하면서 그 이유는 혼돈이 창세의 근원이자 지혜의 근원의 상징인 우로보로스가 가지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로보로스가 가지는 속성에 대하여 노이만은 “이 세상 또는 자아형성과 의식이 도래하기 이전의 것으로 우로보로스에서는 죽음후의 존재나 탄생이전의 존재는 동일한 것이고 삶과 죽음의 바뀌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sup>87)</sup>이라고 하였다.

폰 프란츠가 소개한 마수디(Masudi)에 의해 기술된 이슬람의 문헌에서 발견된 서두름 모티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80년 동안 진흙덩어리로 누워있었는데 알라가 그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었지만 그의 영혼이

85) Jaffe A(edit), 이부영(역) (1989): 앞의 책, pp435-437.

86) Neumann E (1955): Ibid, p24.

87) 이것은 새로운 탄생의 바뀌이며 <티벳사서>에서 만약 死者가 사후에 가장 높은 지식을 터득하면 틀림없이 다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탄생하는 자에게는 사후의 지시사항이 탄생이전의 해야 할 것의 지시와 동일한 것이다. Ibid, p23.



아직 부족하였다. 그가 120년을 더 누워 있는 후 알라가 그에게 삶의 숨을 불어넣어주었다. 그러나 숨은 아담의 신체를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기를 원했으나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 다시 누웠다. 그래서 코란의 수라 17과 21에는 “인간은 성급하게 창조되었다.”고 써져 있다.<sup>88)</sup> 알라의 숨이 아담의 신체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일어나서 경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고대신화에서 혼돈은 천신(天神)의 이름이다.<sup>89)</sup> 남해의 임금 숙(儻)과 북해의 임금 홀(忽)은 중앙의 임금인 혼돈과 자주 만났다. 혼돈은 늘 그들에게 친절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간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쉴 수 있는데 혼돈은 그런 것이 없으니 그를 위하여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다. 매일 그들은 혼돈에게 하나씩 구멍을 뚫었고, 7일째에 그는 죽었다. 숙과 홀의 배려가 혼돈을 죽인 것이다.<sup>90)</sup>

이 장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폰 프란츠는 남해의 임금 숙(Brief)은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의 특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사려 깊게 추구하기 보다 종잡을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자로서 형형색색으로 변화(Schillernde)하고, 북해의 임금 홀(Sudden)은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빨리 잡거나 너무 빨리 끼어 드는 사람이다. 중앙에 있는 “혼돈-무의식”은 전의식적 전체성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sup>91)</sup> 변화무쌍하거나 성급함이 혼돈, 즉 무의식을 죽게 한다는 사실은 성급한 경향을 가진 현대인들, 특히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심리 치료사들의 무의식에 대한 성급하고 현란한 해석이 오히려 그 의미를 파괴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혼돈을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는 중요한 임상

88) Ibid, p145.

89) 산해경 서차삼경 西次三經에 천신으로서 혼돈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서쪽의 天山에 신령스러운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누런 형जू머니 같고, 한 덩어리 불꽃송이처럼 붉은데 다리가 여섯 개요, 날개가 네 개이고 눈. 코. 귀. 입이 모두 없었다. 그러나 음악과 춤을 알았으며 이름을 제강帝江이라 하였다. 제강은 곧 재홍(帝鴻)이며 중앙 上帝인 황제黃帝인데 <장자>의 우언에서는 직접 그를 중앙의 천제라 하였던 것이다. 정재서(역) (1991): 산해경 1, 민음사, 서울, p143.

90) 장자 內篇, 제7, 응제왕(應帝王) 9, 영어 번역으로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chaos로 번역되었으나 Richard Wilhelm은 “혼돈-무의식(chaos-unconscious)”으로 번역하였다. Von Franz ML (1995): Ibid, pp 142-143.

91) Von Franz ML (1995): Ibid, pp142-143.

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표면적으로 화려한 수사적 해석이나 성급함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임상감독에서 서두름은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이다. 미술치료 임상에서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물과 같은 액체자로 만을 사용하는 플레로마 상태 즉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개인의 경우, 물리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둘러서 인지적으로 발달을 촉진시키려는 작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숙이 성급한 존재여서 천재를 죽이는 중국의 신화와 완전하지 못한 아담을 일어나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서두름의 주제에 대하여 폰 프란츠는 “적절하게, 주의 깊게,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사려 깊게 의식하고 인지 하되, 동시에 너무 지연되어 그것을 말살하지 않게 하는 창조적 과정은 최고의 기술 중 하나”<sup>92)</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최고의 기술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대상(물질)이나 원래의 새로운 사실을 말살하지 않고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3. 육지/섬 창조의 심리학적 의미

창조신화에서 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육지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의 내용물이 자아의 영역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창조신화에서 육지/섬 출현은 원형과 본능에 해당하는 사이코이드(psychoid)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인 자아 콤플렉스와 연관시키면서 의식성의 배아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93)</sup> 에딘저는 “육지/땅은 무겁고 항상 거기에 있어서 심리적 내용이 ‘땅처럼 되다.’라는 의미는 심리적 내용이 특정 부분에 제한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심리적 내용이 자아의 영역에 달라붙었다는 의미”<sup>94)</sup>라고 했다. 창조신화에서 섬/육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초개인적/원형적인 정신이 가지는 힘의 영향이 감소되고 자아/의식영역의 중요성이 서서히 증대하게 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 1) 괴물/거신의 몸이 육지가 되는 창조신화

에스키모 신화 모음집 독수리의 선물(The Eagle's Gift)에서 모든 존재를 만

92) Ibid, p148.

93) Ibid, pp64-66.

94)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99.

든 첫 인간인 아버지 까마귀(Father Raven)이 바다에서 나온 엄청난게 크고 검은 괴물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아버지 까마귀가 그 괴물을 죽이는 것을 도와주었고 괴물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서 주변에 던졌는데 그것들이 모두 큰 섬들이 되었다. 그래서 지구는 서서히 커졌고 사람들과 피조물의 거주지가 되었다.<sup>95)</sup>

복구의 창조신화에서 이미르의 시체는 태허(太虛) 키눈가가프 속에 던져졌으며, 그의 시신에서는 대지가, 피에서는 바다가, 두개골에서는 하늘이 창조되었다고 한다. 거신모티브는 중국의 창조신화 반고에서 제주도의 선대문 할망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했던 여성의 꿈이다.

용이 섬(산)이 되는 꿈 폭이 넓은 강(물)을 건너는데 아주 큰 뱀 또는 용 같은 한 생명체가 강의 다리 같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내가 죽이려고 발로 힘껏 찼더니 산(섬)이 되었다.

괴물/용은 용이 방대하게 저술한 메르쿠리우스의 영(Spirit Mercurius)으로써 원형적 정신의 자율적인 영이며 초개인적인 자기(Self)의 역설적인 현현이다. 연금술에서 응고되어야 하는 물질은 도망가기 쉬운 메르쿠리우스이다.<sup>96)</sup> 원형적 정신의 자율적인 영인 메르쿠리우스(용)가 산/육지가 된다는 것은 원형적인 정신이 자아의 영역으로 구체화 또는 육화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2) 창조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육지

하늘에서 내려온 물방개가 물속에서 흙을 건져 올려서 육지를 만든 북미 원주민 체로키 부족의 우주창조신화를 들 수 있다. 넘(Num)은 시베리아 사모예드 족의 최고신으로 세계가 시작될 때 물로 가득 찬 카오스를 정찰하도록 새들을 내보냈다. 새 한 마리가 부리에 물고 돌아온 진흙덩이로 육지를 만들었다.<sup>97)</sup> 힌두창조신화에서는 신들과 지니(genii)들이 거대한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서 응고되어 나온 버터에서 다양한 대상들이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sup>98)</sup> 창조자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육지가 만들어진다는 신화들이 시사하는 것은 자아의 부단한 노력이 자아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실을 휘젓는 질풍노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격을 견고하게 하기 때

95) Von Franz ML (1995): Ibid, p.33.

96)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102.

97) Von Franz ML (1995): Ibid, p100.

98) Ibid, pp100-101.

문이다. “해묵은 삶의 질서가 사라지고”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했던 한 중년 남성의 꿈이다.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 이른 새벽이었다. 검은 진흙과 오니(汚泥)와 똥이 뒤섞인 오물이 나의 허리까지 차올라 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검은 물질이 지평선까지 뒤덮여 있었다. 마치 창조의 첫날 새벽의 순간과 같았다. 나는 끈을 이용해 내 다리로 검은 진흙 속을 열심히 꾸준히 휘젓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했더니 태고의 개흙이 서서히 단단해 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태양이 솟아올라와 그 열기가 물기를 마르게 하고 땅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곧 단단해 진 땅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sup>99)</sup>

### 3) 바위/산이 자라나 육지가 되는 경우

육지가 세월이 더해가면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아이누 족 창조신화... 먼 옛날 푸른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기름 같은 것이 있고, 이 기름이 불타듯이 활활 타올라와서 하늘이 되고, 탁한 것은 굳어져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세월이 더해가면서 단산해져서 하나의 기둥신이 되었다.<sup>100)</sup> 사모아 창조신 탕갈로아(Tangaloa)는 홀로 하늘도 땅도 존재하지 곳에 있던 바위인 탕갈로아 파투투푸누(Tangaloa-faa-tutupu-nuu)에서 돌아다니는데 신이 서있던 바위가 점점 자라서 세상이 되었다. 바위가 자라나는 모티브는 한국의 마이산 설화와 알타이 지역의 달단(Tatar) 족의 창조신화에서도 나타난다.<sup>101)</sup>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던 전문직 여성의 적극적인 상상의 경험에서 자라나는 산의 모티브를 볼 수 있다. 이 여성은 정규적인 융분석을 받던 피분석자는 아니었으나 심리치료관련 분야 학위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분석심리학적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도이다. 패배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아가 무의식의 창조적인 의도를 허용하면 있을 수 있는 현상의 예가 될 듯하여 인용한다.

눈을 감으면서 핏빛하늘이 펼쳐지고, 서서히 하단에서 검은 송곳 같은 것이 솟아나게 되고 그 물체가 점점 커져서 바위섬이 되고 두개의 섬이 되고 초목이

99) Ibid, p102.

100) 사라시나 겐조, 이경애(역) (2000): 《아이누 신화》, 역락출판사, 서울.

101) 박시인 (1994): 《알타이 신화》 청노루, 서울, p357.

생기는 데 사람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절로 “섬마을 아기” 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되었고 현실은 변함없지만 한결 편안해졌다.

#### 4) 연금술에서 ‘육지창조’는 응고(Coagulatio)

응고는 땅(earth)같은 굳은 것으로 바꾸는 공정으로, 창조신화에서 육지가 창조되는 것은 연금술의 응고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에딩저는 연금술의 응고의 상징을 한 개인의 인격/자아의 구축과 연관시키면서 “초기 정신적인 발달의 전(全)과정, 즉 객체적인 정신(objective psyche)과 일체(oneness)된 근원적인 상태로부터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은 응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선형적으로 타고난 원형적인 이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육화 되고 인격적인 형태가 되어야 만 가능하다.”<sup>102)</sup>고 하였다.

에딩저는 인간관계가 결여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격리하여 양육했거나 부모에 의해 완전히 거부당한 상태로 양육된 아이들, 부모를 상실한 경우 인성이 응고/발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자아는 일종의 동물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고 했다.<sup>103)</sup> 유년기에 가혹한 박탈과 유기에도 불구하고 가정부, 숙모, 교사 혹은 조부모와의 진정한 관계의 경험이 원형적인 이미지의 인격화를 증재하는 경우 부모의 불충분했던 양육이 상처는 되었을지라도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경험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자라나는 인격에 영구적으로 통합/응고된 되었기 때문이며 심리치료사의 역할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또는 적대적인 내용으로 응고되어 있는 측면들을 호의적인 환경에서 녹여서 다시 응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04)</sup>

미술치료에서 극심한 박탈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오랫동안 형태가 없거나 물 같은 액체를 가지고 노는 것에 머물다가 서서히 고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현실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완화되어 가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102)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117.

103) 위의 책, p115.

104) 위의 책, p117.

### 5) 창조적인 작업은 연금술의 응고(Coagulatio)

꿈과 적극적 상상의 이미지는 유비적인 의미로 내면의 세계를 외부의 세계로 연결하여 구체화/응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금술공정의 ‘응고’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융은 그의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감정을 이미지로 바꾸었을 때 말하자면 감정 안에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sup>105)</sup>고 했다. 심리적/정동적인 내역이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엇으로 응고되기 전에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지만 구체화/응고되면 그 내용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작업의 효용성이 드러난다.

구렁이 꿈을 꾸 여성인 경우, 분석 후반기에 모래상자 작업에서 섬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섬을 견고하게 하려고 물을 뿌려 모래를 다지고 자갈로 태두리를 만들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했고 미루어 왔던 학위논문을 마무리하는 구체화/응고가 있었다.

〈자라나는 산〉에서 소개한 여성의 경우 당시 여러모로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후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심리적인 내용물이 표현만 되어도 안정감을 얻게 된다고 했던 융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장님이 되는 꿈을 꾸 우울했던 여성의 경우 사회성이 부족하여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가 어렵게 얻게 된 첫 직장에서 대외적인 행사의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무렵 명상 중에 어둠속에서 빛/북극성을 보게 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의 심화를 위하여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분석종료 후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응고가 있었다.

구체화/응고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Timaeus)*에서 우주적인 몸(the *body* of universe)이 창조되는 내용과 연관되는 대목이 있다.

이제 형체를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 그리하여 눈에 보여야 하고 만져져야 한다.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하고 만져지기 위해서는 견고한 무엇이 있어야 하며 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견고할 수 없다.<sup>106)</sup>

105) Jaffe A(edit), 이부영(역) (1989): 앞의 책.

106)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앞의 책, p119.

에스키모의 창조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깊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작은 새가 그의 손에 내려 앉았다. 참새는 그 주변에 있었으나 어둠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더듬어 가기 전에는 참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인지 모르고 땅에 묻었던 씨앗에서 숲과 풀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창조해 나가게 된다.<sup>107)</sup>

### 6) 세계멸망 후 다시 떠오른 육지: 자아의 재 구축

북구신화 《라그나뢰크》 일반적으로 ‘신들의 황혼’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신(지배자)들의 운명’ ‘신들의 몰락’을 의미한다. 오딘신(神)의 아들이며 광명의 신인 발드르가 사신(邪神) 로키의 간계로 죽자, 신들의 황금시대는 끝나고 세계는 혼란 속에 빠진다. … 마지막으로 불꽃의 거인 수르트가 던진 횃불에 우주를 지탱하던 이그드라실의 거수(巨樹)가 불길에 싸이면서 육지는 바다 속에 잠겨 세계는 멸망한다. 그러나 마침내 바다 속에서 새로운 육지가 다시 떠올라 살아남은 2명의 남녀와 저승에서 돌아온 발드르에 의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힌두신화의 경우, 홍수가 힌두의 노아라 할 수 있는 마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파멸시킨 후 참사가 앗아간 소중한 것들은 복구되어야 했다. 그래서 “신들과 지니(genii)들은 거대한 우유의 바다를 젖기 시작했다. 거대한 뱀(Sesana)을 밧줄로 삼고 Slow-Mountain (Mandara)를 젖는 막대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휘젓는 과정에서 마치 크림으로부터 버터가 나오듯이 거기에서 다양한 대상들이 응고되어 나왔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환자와 미술치료를 하던 대학원생의 경우, 죽음에 대한 강력한 역전이 경험으로 힘들어 하던 당시 임상감독 시간에 그린 그림은 화면전체가 출렁거리는 바다였다. 이어서 그린 것이 바다 속에서 미역줄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그림을 그렸고 자라고 있는 땅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굳은 땅을 그렸다. 이러한 과정을 2-3주에 걸쳐서 경험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았고, 같은 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환자는 바다 위에 있는 섬 꼭대기에서 영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샘이 있고 그 샘을 온몸으로 부둥켜안는 꿈을 꾸게 되었고 마치 <현자의 장미원> ‘매르쿠리우스의 샘’을 연상하는 조

107) Von Franz ML (1995): Ibid, pp28-37.

형물을 만든 후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sup>108)</sup>

자연도 풍요와 재해라는 이면이 있듯이 인간 삶의 경우도 그렇다고 하겠다. 기능(응고)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진지한 대학원생의 경우 심리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 자아가 침수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안전한 공간에서 구체화/응고시키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재 응고시킴으로써 다시 안정감이 확보되었고 이 안정감이 환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종의 대홍수 신화와 연관되는 주제인 듯하다.

## 마감하는 글

이 연구는 창조신화가 무의식의 창조성의 발로라고 보는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흑암/혼돈, 천지분리, 육지창조의 상징성이 무의식/전의식적 전체성에서 의식/자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개인의 의식화 과정과도 공통점이 있음을 사례와 연관하여 탐구하였다.

자연에너지로서 리비도의 이행과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아 기능정도에 따라서 전진과 후진 모두 합목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전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장자나 이슬람 문헌에 나타나는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기능에 과도하게 치우친 개인에게는 어둠속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무기력한 개인에게는 천지분리 즉 리비도의 전진이 합목적적이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궁지 또는 외상후유증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치유현장에서 창조신화적 모티브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한 바 있고 이를 인간 무의식의 창조성의 발현으로서 그 목적의미는 치유/전체성을 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논문의 취지는 인간 무의식의 창조성을 지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작업을 통하여 그 의도가 구체화/표현되도록 허

108) Kim JS (2016): Clinical Implication of Images of Island: Based on Dreams, Sandtrays and Artwork of Four Korean Women. IAAP, Congress에서 세부적으로 발표, Proceeding Book (2017), 김진숙 (2017):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섬’ 상징의 임상적 적용: 꿈, 모래상자, 그림작업에 출현한 섬 이미지 중심으로, 《심성연구》 32(1),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pp1-18.



용하는 것이 가지는 유용성을 부각시키지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이 방대한 내용이 무리하게 축약되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 참 고 문 헌

- 김열규 (1976): 《한국의 신화》, 일조각, 서울.
- 김열규 (2003):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파주.
- 김열규, 한국정신문화원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진숙 (2012):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 융 연구원 전문과정수로 논문》.
- \_\_\_\_\_ (2017):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섬’ 상징의 임상적 적용: 꿈, 모래상자, 그림 작업에 출현한 섬 이미지 중심으로, 《심성연구》, 32(1).
- 박시인 (1994): 《알타이 신화》 청노루, 서울.
- 사라시나 겐조, 이경애(역) (2000): 《아이누 신화》, 역락출판사, 서울.
- 서유원 (2002): 中國天地開闢神話에 보이는 天地의 形象, 《中語中文學》, 18.
- 서대석 (1997):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 서대석 (2002):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창조신화의 시계, 전북대 인문학 연구소, 소명출판, 서울.
- 손진태 (1930): ‘창세가’《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동경.
- 孫晉泰 (1981): 《朝鮮巫覡之神歌, 孫晉泰先生全集》 5, 太學社, 파주.
-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 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개정판), 일조각, 서울.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이영수 (2008): “인천지역의 산 이동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안동.
- 임석재 (1989): 한국구전설화, 전집 2, 평민사, 서울
- 임석재 (1991): “우리나라의 天地開闢神話”, 《比較民俗學》, 7, 비교민속학회, 안동.
- 장주근 (1952): 《한국의 신화》, 성문각, 서울.
- 張籌根 (1973): 韓國의 民間信仰, 東京金花舎, 동경.
- 전인초, 김선자 (1998): 《중국 신화전설》, 개벽편, 민음사, 서울.
-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의 研究, 大阪屋號書店.
- 정재서(역) (1991): 산해경 1, 민음사, 서울.
- 최상수 (1984): 韓國民間傳説集, 通文館, 서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2》, 두산동아, 서울.
- 현용준 (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서울.
- 玄容駿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서울.

-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서울.
- Edinger E, 김진숙(역) (2015):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 \_\_\_\_\_, 김진숙(역) (2016): 《의식의 창조, 이 시대 융의 신화》, 돈화문출판사, 서울.
- Harding E (1949): *An Old Tales Retold: Creation Myths of Babylonia*, Spring, The Analytical Psychology Club of N.Y. Inc.
- \_\_\_\_\_, (1964): *The Parental Image: Its Injury and Reconstruction*, A Study in Analytical Psychology, G.P. Putnam's Sons, for The C.G. Jung Found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 \_\_\_\_\_, (1965): *The 'I' and the 'Not-I',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Bollingen Series LXXIX,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 Jaffe A(edit), 이부영(역) (1989):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융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5): 융 기본저작집 제7권, 《상징과 리비도》, 솔출판사, 서울.
- Jung CG (1976): *6 Psychological Types*.
- Kim JS (2016): Clinical Implication of Images of Island: Based on Dreams, Sandtrays and Artwork of Four Korean Women. IAAP, Congress Proceeding Book.
- Neumann E (1954):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55): *The Great Mother*, Bollingen Foundation Series LIV, New York.
- \_\_\_\_\_, R. Manhuem(translation) (1990): *The Child*, Shambhala Boston.
- Perera SB, 김소영 역 (2014): 《여신에게로 내려가기》, 돈화문출판사, 서울.
- Von Franz ML (1995):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Sim-seong Yeon-gu 2023, 38 : 2

〈ABSTRACT〉

**Psychological Meaning of Creation Myths:  
Focused on Darkness/*Massa Confusa*, Separation  
of World Parent and Creation of Land/Island\***

Jin-Sook Kim, A.T.R., M.P.S., Ph.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the creation myths by utilizing related myths, analysand's dreams, active imagination, and artwork to reveal the creative function of the unconscious.

The creation myth is the phenomenon of projection when a new order is demanded in the chaotic phase of personal and human history. Depending on the attitude of the ego, it can be a sign of a reconstruction/alteration of consciousness or an invasion. Related literature such as Jung, von Franz, Neumann, Harding, and Edinger, domestic papers, and case reports are introduced to identify the background for this researc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darkness' in creation myths is regarded as unconscious that is too dark to see. The Eskimo creation myth and an analysand's dreams of being blind and wandering in darknes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nigredo* in Alchemy.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massa confusa*' regards *Uroboros*, *pleroma*, early childhood experience, and a psychological womb in which everything is contained in one. With related myths and unconscious materials, a discussion is followed on how this realm can be a precursor of creation but also be trapped in an abys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separation of world parent' is related to splitting one into two when unconscious contexts were touched before it became consciousness. Related myths, 'the world created between heaven and earth,' 'celestial being descending to the earth,' and 'the legend of relocation of a mountain,' as well as clinical material, are examined. Then this paper discusses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separation of heaven and earth occurring on its

own, that the creator's emotional aspects, such as loneliness and anxiety, are involved, and that delayed separation leads to the death of *creatura* and sudden separation leads to the death of the chaos. Then,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world parent' is discussed in relation with *separatio*, the alchemical process of acquiring light/consciousness from darkness/unconsciousnes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the creation of 'land/island' refers to the emergence of consciousness, the contents of the unconscious material into the realm of the ego. Related myths, such as the 'body of the monster/dragon becoming land' and analysand's dreams, are introduced, referring to the embodiment of *Mercurius*. This is followed by discussing related myths in creating the land to *coagulatio* in alchemy and utilizing creative work such as active imagination, art, music, and dance that can coagulate or concretize unconscious material in clinical approaches.

Finally, myths of resurfaced land after the Flood or the complete destruction of the world in relation to the reconstruction of ego are discussed with related clinical material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analyst/therapist/supervisor's mental stability and capacity.

**KEYWORDS** : Creation myths; Creative function of unconscious; Darkness; Massa confusa; Separation of world parent; Creation of land; Active imagination; Artwork.

---

\*\*Graduate School of Seoul Buddhist University, Private Practice (JSJRS), Incheon, Korea